5. 기업분석 (2)

셀트리온(068270)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신약 기업으로, 2026년 입증의 무대

바이오시밀러 수익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신약 영토 확장

동사는 '91년 설립되어 '05년 코스닥 상장 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합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의 연구, 개발,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5년 기준 매출 비중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약 90%를 상회한다. 합병 이후 원가 구조 개선을 통해 영업이익률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미국 짐펜트라(Zymfentra) 처방 확대 및 데이터 입증

동사의 첫 번째 미국 신약인 SC제형 '짐펜트라'는 초기 안착 과정에서의 우려를 딛고, '25년 하반기 미국 3대 PBM+중소형 PBM 등재 완료로 미국 내 환자 90%가 보험 혜택이 가능해져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실질적인 처방 데이터(TRx)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짐펜트라의 '26년 미국 매출 가이드라인을 공격적으로 제시하여 신약 매출 기반의 확실한 실적 성장을 증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격적인 글로벌 M&A 및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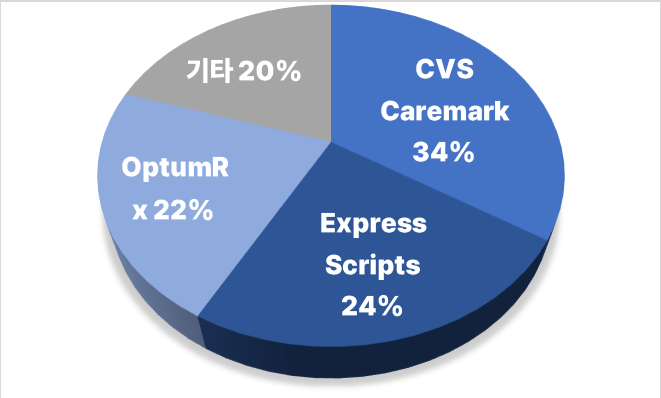
동사는 미국 내 생산·판매 체계 일괄 구축을 위해 최근 미국 생산시설 인수를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3,5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확보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ADC 항암 신약(CT-P70) 등 차세대 모달리티 강화 전략과 중장기적인 기업 인수 합병(M&A) 및 사업 확장 방향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피하주사(SC) 제형 '짐펜트라'



자료 : 셀트리온, ARIS

미국 3대 PBM 등재 완료



자료 : KFF, ARIS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아리스(ARIS)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